

가구주 직업이 가계의 부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ouseholder's Occupation on the Debt Structures of Households

성 영 애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Sung, Young-Ae
Dep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householder's occupation on the debt structures of households. Household debts were categorized into six types according to borrowing sources: debts from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es, employers, private sources, Gye, and retailers. Householder's occupation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full-time employees, employers, farmers & fishermen, and part-time employees. The data came from the 1996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ates of holding each types of debt and the debt amou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householder's occupation. The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to overcome the possible household debt problems were also different by the householder's occupation.

Key words : Debt structures, Occupation, debt holding, type of debt, debt amounts

I. 서론

저축과 차용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주는 기간간 소비자선택이론에 의하면 가계의 저축 및 차용행동은 한 시점에서의 가계의 소득과 소비수준과의 차이를 매꾸어 주는 합리적인 수단이다(Bryant, 1990). 그러나 기간간 소비자선택이론에서는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저

축수단이나 차용수단이 서로 상호교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나 가계가 각기 다른 자산이나 부채를 선택하거나 한 가계가 여러 개의 자산이나 부채를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독특한 저축구조나 부채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독특한 자산구조 또

는 부채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재무설계에 관심을 갖는 일련의 연구 군들은 소비자나 가계가 보여주는 다양한 자산배분행동에 관심을 갖고 가계가 갖는 독특한 자산 및 저축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예: 양정선, 1991, 양세정·강미나, 1993, 양세정·주인숙, 1994, Xiao, 1995, 문숙재·양정선, 1996, 이은실·최현자, 1998 등).

반면 자산과는 달리 다양한 부채보유행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Prather & Huyer, 1996). 자산보유나 배분과 마찬가지로 부채보유행동은 차용목적이나 차용에 대한 수요, 대출원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출상환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부채유형 마다 부채로서 갖는 의미, 이자율, 대출규모 및 조건, 상환기간과 같이 가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채유형의 결합으로 나타난 부채구조는 가계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가구주 직업은 가계의 소득규모와 안정성, 소비, 저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승신 등, 1996), 가구주 직업에 따라 가계의 부채에 대한 수요, 대출원에 대한 접근가능성, 상환능력 등도 달라지게 된다. 그 결과 가구주 직업에 따라 독특한 부채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 부채구조를 파악한 일부 연구가 이를 부분적으로 입증하여 주기는 하나(양세정·강미나, 1993, 김시범, 1993, 최현자, 1995, 문숙재·김순미·양정선, 1996), 기존 연구들은 부채의 유형을 세밀히 분류하지 못한 점과 도시가계나 농가 등 특정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점, 가구주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채구조의 문제를 가계의 인적 자원이나 경제적 자원 특성과 결부시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의 제한점이 있다. 가계자원특성과 부채문제를 직접 연관시킨 연구는 부족하나 빈곤이라든가 경제문제의 악순환과정에 관한 연구결과(Schiller, 1999)는 열악한 가계자원특성은 부채문제를 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자원특성과 부채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가계유형에 따른 부채특성과 부채로 인한 가계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진단하여 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차용관리에 관심을 갖는 재무설계나 재무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계복지관

련기관이나 금융기관에도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대상을 파악하는데, 또는 고객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차용과 관련하여서 가계는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차용을 하여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와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 가계가 그것이다.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부채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독특한 부채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부채구조를 구성하는 부채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국민경제나 가계경제와의 관련성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방법은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원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다. 즉, 부채를 제공하는 기관이 제도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공금융 부채와 사금융부채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한국은행, 1992, 양세정·강미나, 1993). 또 다른 분류는 이러한 대출이 현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현금대출과 구매대출로 나누어 진다(이기춘 등, 1998). 공금융부채인가 사금융부채인가에 따라, 현금대출인가 구매대출인가에 따라 부채가 갖는 의미와 대출규모, 자격, 빈도, 대출용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의 보유여부나 보유액으로 인한 영향력도 다르다. 예를 들면, Godwin(1996)에 따르면 가계가 갖고 있는 부채유형에 따라 가계가 파산할 위험성이 달라진다.

가구주 직업과 부채구조와의 관련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구주 직업에 따라 부채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직업은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구성원의 기호나 선호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 다른 소비패턴을 형성하게 된다(이승신 등, 1996). 서로 다른 소득과 소비패턴을 갖는 가계는 부채에 대한 수요도 달라질 것이다. 둘째, 가구주 직업에 따라 부채에 대한 접근용이성, 상환능력과 같은 차용관련 능력이 달라진다. 가구주 직업은 소득의 안정성과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데,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의 경우 직업에 따른 신용

등급을 매겨 놓고 대출자격과 대출한도 등을 결정하는 근거로 이용한다(박호용·이종인, 1994). 또한 기업은행이나 농업, 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이 특정 금융기관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설립되기도 한다(한국은행, 1999). 따라서 직업에 따라 특정유형의 부채를 더 갖거나 덜 갖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 부채구조가 달라진다는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구조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의 저축시장조사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1985년에서부터 1992년까지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부채보유비율과 규모, 상환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1980-1992년 동안의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율과 보유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양세정·강미나(1993)에 의하면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의 비율은 감소추세이나 부채보유액은 증가하는 경향이고, 사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계의 부채구조는 봉급생활자, 일용근로자, 자유직업자, 자영업자 및 기타로 분류한 가구주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2년 현재 부채보유액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편이며, 자유직, 봉급생활자, 일용근로자 순으로 보유액이 많았다. 그러나 보유액의 증가율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장 높았다.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보유상황은 봉급생활자의 경우 은행이용률이 매우 높았으며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채의 이용이 두드러짐을 발견하였다. 같은 자료를 분석한 김시범(1993)도 봉급생활자는 공금융 부채비중이 80.4%로서 월등히 높으며 일용근로자는 사금융부채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직장대출과 같은 대출원을 부채유형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구조를 단순 분석함으로써 부채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경제상의 문제발생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가 도시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면 최현자(1995)에 의하면 농가와 도시가계의

부채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가의 부채의 증가율은 도시가계의 부채증가율보다 앞서고 있으며, 평균 농가 부채액은 도시가계 평균 보유액보다 높다고 하였다. 농가는 도시가계와는 달리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패턴이나 소득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경우 독특한 부채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능력도 다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가구주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계의 차용행동에 관한 연구군들은 가구주 직업을 다른 여러 가지 가계특성의 하나로써 가계의 부채보유여부나 보유액에 미치는 연구를 행하였다(성영애·양세정, 1995, 문순재 등, 1996).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가구주 직업의 영향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부채유형별로 가구주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라든가 부채상환능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자원특성이 가구주 직업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가계의 부채구조가 달라질 것이며, 결국 부채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구주 직업이 부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연구문제 1> 가구주 직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가계자원특성(인적자원특성과 경제자원특성)은 어떠한가?

가구주 직업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가구패널조사에 근거하여 봉급생활자, 자영업 및 자영업종사자(이하 자영업자로 명명함), 농림수산업자 및 비정규직 종사자로 4분하였다.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계자원특성은 가계에 대한 부채수요와 부채에 대한 접근용이성 및 부채상환능력을 보유하는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한 방법이나 하나의 변수가 부채에 대한 수요나 접근용이성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근거에 의해 가계자원특성변수를 분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수요보다는 접근용이성이나 부채상환능력과 관련지어 부채구조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가계자원특성변수를 크게 인적자원특성과 경제자원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부채구조는 어떠한가?

2. 1.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보유가계 비율은 어떠한가?
2. 2.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평균보유액과 비중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의 부채구조는 6개의 부채유형으로 구성된 결합체를 말한다. 즉 부채를 대출원천 및 현금/구매대출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은행부채, 기타금융기관부채(보험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 대출), 직장대출, 사채 쓴 돈, 이미 탄 계, 구매대출(할부나 외상 매입금)이 그것이다. 은행부채나 기타금융기관부채는 공금융부채이자 현금대출의 성격을 갖는다. 직장 대출, 사채 쓴 돈과 이미 탄 계는 사금융부채이자 현금대출의 성격을 갖는다. 구매대출은 일부는 사금융, 일부는 공금융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가계자원특성에는 인적자원특성으로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및 소득원수를 포함하였으며, 경제자원특성으로는 가계소득, 생활비대비 가계소득, 유동자산규모, 자가보유비율 및 실물자산규모를 포함하였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1996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이다. 이 조사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996년도 자료는 4차 패널자료이다. 4차 자료의 표본은 조사원년인 1993년도에 다단계층화확률표본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반가계에서 추출된 4,547 가계 중 4차 추적에 성공한 2,833가계이다(대우경제연구소, 1997). 본 연구

에서는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와 자료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2,236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SPSS(Window 7.5)를 이용하여 빈도분포표, 평균, 백분율, χ^2 검증,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자원특성

조사대상가계의 가계자원특성을 가구주 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가계의 가구주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봉급생활자의 비율이 45.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30.2%, 농림수산업자가 14.8%, 비정규직 종사자가 10.0%를 구성하고 있었다.

전체가계의 가구주 성별은 93.6%가 남성으로 대부분이 남성이 가구주였고, 가구주 평균연령은 45세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가구원수는 평균 3.9인이며 소득원수는 1.5명 정도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6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생활비규모는 162만원 정도로서 가계소득이 월평균 생활비보다는 크다. 조사대상가계의 유동자산보유액은 1,840만원이며 자가보유비율은 63.4%이며 실물자산보유액은 8,437만원이었다.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자원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봉급생활자 가계의 인적자원 특성을 살펴보면, 봉급생활자 가계는 대부분(96.6%) 남성 가구주가 이끌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다른 유형의 가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이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가장 높았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3.9명이며 소득을 벌여오는 가구원수는 1.6인으로 맞벌이 비율이 자영업자나 농림수산업자 가계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봉급생활자 가계의 경제자원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소득은 자영업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농림수산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보다는 높은 편이다. 가계소득을 생활비와 비교하여 볼 때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평균 유동자산보유액

〈표 1〉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자원특성(N=2,236)

		전체 가계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χ^2/F
N(%)		2,236(100.0)	1,006(45.0)	675(30.2)	332(14.8)	223(10.0)	
인적 자원 변수	가구주 성별 (남성비율%)	93.6	96.6	95.3	92.8	76.7	$\chi^2 = 126.25^{***}$
	가구주 연령(세)	45.0	40.7 a	43.9 b	55.9 d	51.7 c	F = 215.04 ^{***}
	가구주 교육수준 (%)	19.7 15.3 41.3 23.7	7.1 11.1 46.6 35.2	11.1 18.1 49.0 21.8	57.5 18.1 21.4 3.0	46.2 22.0 23.8 8.1	$\chi^2 = 656.27^{***}$
	가구원수(명)	3.9	3.9 b	4.0 b	3.9 b	3.5 a	F = 8.07 ^{***}
	소득원수(명)	1.5	1.6 b	1.4 a	1.3 a	1.7 c	F = 33.39 ^{***}
	가계소득(만원)	206	225 c	245 c	108 a	141 b	F = 49.42 ^{***}
	생활비(만원)	162	166	176	123	155	F = 1.62
경제 자원 변수	가계소득-생활비 (만원)	44	59 b	69 b	-14 a	-14 a	F = 5.29 ^{**}
	유동자산규모(만원)	1,840	2,298 b	1,783 ab	975 a	1,234 a	F = 3.50*
	자가보유비율(%)	63.4	57.3	59.7	96.1	53.4	$\chi^2 = 182.80^{***}$
	실물자산규모(만원)	8,437	7,465 b	10,500 c	8,927 bc	5,767 a	F = 12.54 ^{***}

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자가보유율과 실물자산보유율은 중간정도이다. 이는 봉급생활자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자영업자 가계의 인적자원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는 95.3%가 남성이며 평균적인 연령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보통 4인 가구를 이루고 있었는데, 다른 가계에 비해 소득원수가 적게 나타나 맞벌이를 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자원으로서 중요한 가계소득수준은 다른 가계에 비해 가장 높은 편이며 생활비수준과 비교하였을 때도 높은 편이다. 중간정도의 유동자산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보유비율은 전체평균 보다 약간 낮지만 실물자산보유율은 다른 가계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크다.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계의 인적 자원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성이 가구주이나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보다는 여성가구주가 이끄는 가계의

비율이 7.2%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이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 연령이 55.9세로서 다른 유형의 가계와 비교할 때 가장 높다. 이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가장 낮다. 평균 가구원수는 3.9인이며 이들 중 1.3인 정도 소득을 벌어들인다. 농수산업종사자의 경제자원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의 가계와 비교하였을 때 가계소득이 가장 낮다.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보다도 가계소득이 낮은 편이다. 또한 가계소득을 생활비와 비교하여 볼 때도 가계소득은 생활비수준보다도 적은 편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유동자산액도 975만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상당히 높아 96.1%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다. 실물자산액도 자영업자 가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며 다른 가계보다는 높은 편이다.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인적자원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남성이 가구주인 비율이 76%로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다른 가

계와 비교하였을 때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구주 연령도 평균 51.7세로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계에 이어 높은 편이며 교육수준도 낮은 편에 속한다. 가구원수는 다른 가계보다 작으나 이들 중 소득을 위해 일하는 가구원수는 다른 가계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가계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가계소득을 생활비수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들 가계소득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 가구주 연령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52.4%만이 자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규모는 다른 가계와 비교할 때 가장 작다.

2.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보유비율

조사대상 전체가계의 평균 부채보유율은 54.1%였으나 가구주 직업에 따라 보유비율이 다르다. 농림수산업자 가구의 경우 부채를 보유하는 비율은 69%로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계 % 이상이 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부채보유 비율이 각각 54.4%와 52.2%로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종사자 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은 39.5%로 가장 낮았다.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들 가계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결과 생산성 부채와 소비성 부채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의 부채에 대한 수요가 큼을 반영하며 또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금공급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결과라 보여진다. 반면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들 집단의 부채수요가 적다기 보다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가계를 볼 때 여러 가지 부채유형 중 은행부채를 보유하는 비율이 22.9%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구매대출의 보유비율이 20.8%로 높았으며 은행을 제외한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의 비율은 15.6%였다.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도 10.7%를 차지하였다.

반면 직장대출이나 이미 탄 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이 대출이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선호되는 대출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은행이나 기타금융기관과 같은 공공대출원이 사채나 이미 탄 계와 같은 사금융대출원 보다 많이 이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현금을 직접 대출하는 형태가 아니며 판매원을 통한 대출을 포함한 구매대출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부채유형별 보유비율을 가구주 직업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부채보유비율은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가계가 각각 26.2%와 24.7%로서 농림수산업자(17.8%)나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12.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금융기관 부채는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약 반정도(48.5%)가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봉급생활자 가계의 보유율은 7.3%로서 가장 낮았다. 반면 직장대출의 경우 다른 유형의 가구의 보유율은 거의 0%였으나 봉급생활자 가계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가계내의 직장대출은 가구주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직장대출은 주로 봉급생활자인 가구주에게 주어지는 대출원임을 입증하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사채의 경우 자영업자 가계의 보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보유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봉급생활자 가계나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사채보유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사채와 같이 사금융의 하나인 이미 탄 계를 보유하는 가구의 비율도 다른 부채유형보다는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가구주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가계보다 자영업자의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가계의 경우 다른 유형의 가계보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향이 큼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탄 계의 성격이 다른 부채유형과는 다른 특성-즉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부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긴급한 자금을 위한 용도보다는 친목이나 보다 나은 투자대안의 활용가능성 때문에 보유함-을 갖기 때문에 소득수준이나 유동자산, 실물자산보유액이 큰 자영업자가 계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구

<표 2>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보유가구비율(N=2,236)

	평균 (2,236)	봉급생활자 (1,006)	자영업자 (675)	농림 수산업자 (332)	비정규직 종사자 (223)	F 값
부채보유가구비율	1,209(54.1)	525(52.2)	367(54.4)	229(69.0)	88(39.5)	
은행부채	512(22.9)	248(24.7)	177(26.2)	59(17.8)	28(12.6)	24.43***
기타금융기관부채	349(15.6)	73 (7.3)	93(13.8)	161(48.5)	22 (9.9)	333.06***
직장대출	94(4.2)	89 (8.8)	5 (0.7)	0 (0.0)	0 (0.0)	98.31***
사채	240(10.7)	85 (8.4)	106(15.7)	26 (7.8)	23(10.3)	25.84***
이미탄계	101(4.5)	45 (4.5)	46 (6.8)	5 (1.5)	5 (2.2)	17.92***
구매대출	464(20.8)	231(23.0)	164(24.3)	34(10.2)	35(15.7)	33.92***

매대출의 보유비율은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의 보유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농림수산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경우는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가계유형별로 종합하여 보면, 봉급생활자 가계는 다른 가계와 비교하여 볼 때 은행부채와 구매대출을 많이 보유하는 편이었으며 직장대출의 보유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자영업자 가계의 경우는 여러 부채유형 중에서 은행부채와 구매대출의 보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채 및 이미 탄 계 보유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경우는 기타금융기관 부채의 보유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은행부채의 보유비율도 그 다음으로 높았다.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채 보유비율이 낮은 편으로 각 부채유형별 보유비율도 낮은 편이었다. 이들 가계는 부채 구성요소 중에서는 구매대출을 보유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보유액과 비중

<표 3>과 <표 4>는 부채유형별 보유액을 각각 전체가계와 부채보유가계를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또한 이것이 가구주 직업에 따라 다른지 알아본 결과이다.

<표 3>과 <표 4>에서 조사대상 전체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액은 평균 870만원이었으며, 전체가계의 54.1%에 해당되는 부채보유가계만을 대

상으로 살펴보면 총부채액은 평균 1,613만원이다. 전체가계와 부채보유가계의 은행부채보유액은 각각 평균 370만원과 685만원으로 다른 구성요소의 보유액보다 가장 큰 편이었다. 전체가계나 부채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기타금융기관부채 보유액이 두 번째로 크며, 다음으로 사채의 규모가 크다. 다음으로 직장대출, 구매대출, 이미 탄 계액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부채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보유액은 2배 이상 크나-이러한 결과는 부채보유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균 부채보유액을 근거로 부채 유형간의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동일한 패턴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채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총부채액에서 각 유형별 부채액이 차지하는 비중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은행부채비중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채의 24.2%를 차지한 기타금융기관의 부채가 비중이 두 번째로 컸다. 그러나 구매대출보유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으로 파악한 구매대출비중은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구매대출보유가계의 부채보유액의 편포된 분포를 시사하여 주는 결과이다. 즉, 구매대출을 극단적으로 많이 보유하는 가계가 일부 존재하거나 구매대출을 보유하는 가계의 경우 총부채보유액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부채를 보유하지 않고 구매대출만을 보유하는 가계가 많음을 시사하여 주는 결과이다. 부채보유가계가 보유하는 사채의 비중

〈표 3〉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평균보유액(만원) : 전체 가계(N=2,236)

	평균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종사자		F 값
N	2,236	1,006		675		332		223		
총부채액(만원)	870	572	a	1,373	b	1,107	b	358	a	19.70***
은행부채액	370	310	a	908	b	238	a	114	a	9.33*
기타금융기관부채액	259	73	a	353	b	700	b	159	ab	16.32***
직장대출액	33	69	b	5	a	0	c	0	a	13.36***
사채액	162	83	a	329	b	126	a	65	a	13.72***
이미탄계액	17	12	a	34	b	9	a	4	a	6.32***
구매대출액	29	25	a	43	b	24	a	15	a	4.82**

〈표 4〉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평균보유액 및 구성비 : 부채보유가계(N=1,209)

		평균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종사자		F 값
부채보유가구비율 N(%)		1,209(54.1)	525 (52.2)	367 (54.4)	229 (69.0)	88 (39.5)					
부채보유액(만원)	총부채액	1,613	1,097	ab	2,539	c	1,590	b	907	a	17.94***
	은행부채액	685	595	a	1,124	b	346	a	288	a	9.90***
	기타금융기관부채액	480	139	a	653	bc	1,015	c	404	ab	11.62***
	직장대출액	61	133	b	9	a	0	a	0	a	14.75***
	사채액	300	159	a	608	b	182	a	165	a	14.01***
	이미탄계액	32	24	a	62	b	13	a	11	a	6.47***
	구매대출액	54	47	a	81	b	34	a	38	a	4.99**
부채유형별비중(%)	은행부채비중	36.2	41.1	b	38.8	b	23.5	a	28.4	a	9.68***
	기타 금융기관부채비중	24.2	9.9	a	19.0	b	66.2	c	21.3		141.90***
	직장대출비중	4.8	10.4	b	0.8	a	0	a	0	a	27.73***
	사채비중	12.7	10.5	b	18.9	c	4.4	a	21.5	c	15.69***
	이미탄계비중	3.9	4.1	b	5.8	b	0.5	a	3.2	ab	4.72**
	구매대출비중	18.3	24.0	c	16.6	b	5.3	a	25.6	c	16.18***

은 12.7%를 차지하였다. 직장대출이나 이미 탄 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 부채유형별 보유액이 다른 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가계를 분석한 경우나 부채보유가계만을 분석한 경우 보유규모 자체는 다르나 가계간의 차이가 보여지는 패턴은 동일하였다. 은행부채는 자영업자 전체가계를 분석하였을 때는 약 980만원, 부채보유가계만을 분석하였을 경우는 약 1,124만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봉급생활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보다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금융기관부채는 농림수산업자와 자영업자 가계가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대출의 경우는 농림수산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경우는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봉급생활자 가계의 보유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 이미 탄 계와 구매대출의 경우는 자영업자 가계의 보유액이 다른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가계보다 자영업자 가계가 직장대출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부채를 가장 큰 규모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가구주 직업에 따른 부채유형별 보유비중을 살펴보면, 봉급생활자의 경우 다른 부채유형보다 은행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봉급생활자 가계의 총 부채액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매대출이었다. 평균 보유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비중이 계산된 것은 위에서 제시한 이유와 동일하다. 즉 구매대출의 상환 편포현상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구매대출을 보유하는 가계(23.3%)의 경우는 구매대출만을 보유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한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다른 가계와 다른 점은 직장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사채비중과 기타금융기관부채의 비중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직장대출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탄 계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으나 다른 가계와 비교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 가계의 경우 은행부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행부채는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38.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나 사채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다른 가계와 특히 다른 점은 사채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매대출의 비중이 16.6%를 차지하였다. 이미 탄 계의 비중은 5.8%를 차지하였는데 그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다른 가계에 비하여 볼 때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 가계는 다른 가계와는 달리 은행부채보다는 은행을 제외한 기타금융기관부채비중이 66.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협, 수협과 같은 농림수산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금융기관의 이용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행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의 구성요소별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즉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경우 은행과 기타금융기관을 합친 부채비중이 89.7%를 차지하여 공공금융부채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구매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매대출액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수준으로 나온 것도 다른 가계와 다른 점인데, 이는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경우 구매대출을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며 구매대출만을 보유하는 가계가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경우 직장대출이나 이미 탄 계를 제외하고는 고른 대출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채액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8.4%였는데, 이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기타금융기관부채의 비중은 21.3%로서 농림수산업자 가계보다는 의존도가 낮지만 자영업자 가계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봉급생활자 가계보다는 높은 편이다.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경우 가장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사채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총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5%에 이르며, 이것은 자영업자 가계와 비슷한 수준이나 농림수산업자나 봉급생활자 가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매대출의 경우도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6%로서 봉급생활자와는 유사한 수준이나 자영업자나 농림수산업자 가계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구매대출을 보유하는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평균 구매대출 보유액은 15만원에 불과하지만 구매대출비중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소비성 성향이 큰 구매대출에 생활을 크게 의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가 많음을 시사하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6년 전국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자원특성과 부채구조를 살펴보았다. 가구주 직업에 따라 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계자원특성과 부채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유형에 따른 부채특성과 부채로 인한 가계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진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생활자 가계는 평균 52.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규모는 약 1,097만원으로 자영업자나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부채보유액보다는 작은 편이다. 봉급생활자 가계는 은행부채보유율이나 은행부채비중을 보았을 때 다른 부채유형보다 은행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가계에 비해 소득의 안정성이나 규모가 크며 실물자산의 규모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보여진다. 또한 여러 부채유형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봉급생활자 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해 여러 대출원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다른 가계와는 달리 봉급생활자의 8.8%가 직장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직장대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 가계의 인적자원이나 경제자원을 고려해볼 때 가계간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차용계획 하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대출에의 접근가능성이나 부채상환으로 인한 문제가능성은 다른 가계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부채를 극복할 만한 경제자원과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생활비보다 소득수준이 상회하며, 유동자산보유액도 큰 편이다. 자가보유율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도 높아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또한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자영업자 가계는 부채보유율은 평균 54.4%로 다른 가계에 비해 큰 편도 작은 편도 아니나, 부채보유규모는 가장 크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가계의 평균부채보유액은 2,539만원이다. 이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봉급생활자나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와는

달리 소비성 부채뿐만 아니라 사업성 부채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유비율이나 보유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자 가계가 가장 의존하는 대출원은 은행이다. 그러나 기타금융기관 의존도도 높은 편이며 사채의존도는 다른 가계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다. 이는 가능한 한 공금융기관인 은행이나 기타금융기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나 부족한 경우는 사채를 이용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계를 활용하는 비중도 다른 가계에 비해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자영업자의 사금융 이용이 다른 가계보다는 큼을 알 수 있다. 사채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부채로 인한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큰 가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자원에 입각하여 부채상환능력을 판단하여 볼 때 자영업자간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평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자산규모가 다른 가계와 비교하여 큰 편이고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큰 점을 볼 때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는 비교적 무리가 없는 가계유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부채규모가 크고 사금융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자부담이나 연체부담 등은 클 것으로 보여진다.

농림수산업자 가계는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의 비율이 69%로서 다른 어떤 가계보다 높다. 또한 부채보유 농림수산업자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규모도 약 1,590만원으로 자영업자 가계보다는 작지만 봉급생활자나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보다는 크다. 농림수산업자 가계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성 부채뿐만 아니라 생산성 부채를 상당한 규모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농림수산업자 가계는 기타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많은 액수를 대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타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총부채액의 66.2%를 차지하는 정도이다. 이는 농업종사자, 수산업종사자를 위한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특수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은행부채를 포함하면 금융기관부채의존도는 90%에 가깝다. 이는 농림수산업자 가계가 대부분의 부채를 공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가계가 갖지 못하는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부채이용상의 장점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보유한 농림수산업자 가계의 문제는 부채의 규모가 크고 보유율도 매우 높은데 비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자원과 인적자원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이 생활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유동자산도 적다. 또한 소득원수도 적은 편이며 교육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고 농림수산업자의 평균연령이 매우 높아 현재소득이나 미래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는 부채를 보유하는 비율이 39.5%로 다른 가계보다는 낮은 편이고 평균 부채보유액도 다른 가계에 비하여서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부채를 보유하는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는 다른 가계에 비해 은행이나 금융기관부채를 보유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공공금융 기관에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은행부채를 보유하더라도 그 액수가 총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가계보다도 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소비성 대출임이 확실한 구매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의 소비의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소득은 평균 생활비에 못미치는 정도이므로 소비성 부채를 절제한 부채수요나 저축인출사용의 필요성이 매우 큰 편임이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은 유동자산이 있더라도 평균수준을 못 미치며, 자가보유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저축을 사용하는데도 제한이 있다. 또한 대출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도 않은 것 같으며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부채를 상환하는데 문제의 여지가 많은 가계로 보여진다. 일단 비정규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이 크며 소득이 높지도 않다. 또한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다른 가계에 비해 많은 편이고 교육수준도 낮은 편이며 평균연령도 높은 편이다. 가구주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이 일하는 비율이 더 높으나 가계소득은 여전히 작은 편인 것이다.

이상에서 가구주 직업에 따른 가계유형별 부채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계의 경제 및 인적자원에 입각하여 부채로 인한 가계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진단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가구주 유형에 따라 가계의 부채구조 특성과 부채상환과

관련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제 및 인적자원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가계유형별 문제에 따른 차별적인 부채해결방안이나 부채관련 재무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부채보유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가계 내에 내재해 있는 차이는 살펴보기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각의 가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부채구조, 가구주 직업, 부채보유, 부채유형

참 고 문 헌

- 김시범(1993). 한·일간 가구속성별 저축·부채구조 비교분석. 국민경제리뷰 11, 6-15.
- 대우경제연구소(1997). 대우패널 데이터 설명서.
-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 문숙재·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분석-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박호용·이종인(1994). 예금은행 자동대출상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자료 94-03.
-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양세정·강미나(1993). 가계금융이용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 국민가계경제연구소.
- 양세정·주인숙(1994). 가계저축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62-71.
- 양정선(1991).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춘·박명희·윤정혜·손상희·김경자·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학현사.
- 이승신 등(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이은실·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0), 11-122.

- 최현자(1995).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가계수지와 저축 및 차용행태의 변화. 인하
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문집 2집, 187-207.
- 한국은행(1992). 도시가계 저축시장조사.
- 한국은행(1999). 저축생활 길라잡이: 금융상품안
내·선택요령.
- Bryant, W. 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dwin, D.(1996). Newlywed couples' debt
portfolios: Are all debts created equally?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7,
57-70.
- Prather, C. G. & Huyer, J.(1996). Profiling the
consumer debt portfolio of American
households: Differences by income. Consumer
Interests Annual 42, 149-154.
- Schiller, B. R.(1999). 빈곤의 경제학(7th ed.). 양
세정·김동엽·김대원·주인숙 역. 석정.
- Xiao, J. J.(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99-106.